

2024학년도 2학기 글말교실 소감문



‘글과 말의 힘, 그리고 나의 변화’

이름	김지윤
전공	소프트웨어전공
학번	20212983
참여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1-on-1코칭 (담당교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글말특강 (1-9회차)

글말교실 글말특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는 7회차 강연인 ‘자유연상 글쓰기의 효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강의는 단순히 글쓰기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제 일상에 적용해 실제로 효과를 본 강의였기에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강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글쓰기 경험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기억에 남는 글쓰기 경험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얼마나 글쓰기를 멀리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고 글쓰기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프리라이팅(freewriting)’을 시작한 것입니다. 마인드맵처럼 자유롭게 흘러가는 생각들을 메모장에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주제들로 키워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붕어빵, 아르바이트, 학교, 피크민’ 같은 키워드들이었죠. 점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면서 문장으로 확장되기 시작했고, 짧은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도 이제는 매일매일 간단한 일기를 정리하는 습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강의에서 추천한 아이폰 일기 어플이 보여주는 질문 중에 “나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친절할 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항상 이런 질문을 들으면 내가 남에게 관대하고 나에게 친절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식적인 시간을 갖지 않으면 또 쉽게 잊곤 했기에, 매일 일기를 쓸 때 자신에게 친절할 말을 한 마디씩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방 청소를 깔끔히 했다”, “시간 약속을 잘 지켰다” 같은 기본적인 간단한 칭찬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친구들의 작은 변화를 알아챘다, 나는 섬세한 사람이다”와 같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나를 알아가는 칭찬들을 적어가는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제 성격의 단점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소 생각과 고민, 걱정이 많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이런 고민들이 너무 과중해 생각을 아예 섀다운하고 싶다는 극단적인 마음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프리라이팅 습관이 들면서 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고 그러한 계기들이 모여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글로 쓰면서 다시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하고, 일주일 전에도 같은 고민을 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그래도 그 사이 잘 살아왔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후회했던 일들을 적으며 “오늘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고민과 걱정에 대해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고민과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번 글말특강을 수강하면서 저는 글쓰기뿐만 아니라 말하기에서도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말하고, 말과 글을 통해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말과 글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 관계를 쌓는 기본 도구가 바로 말과 글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1+1=2라는 간단한 사실이 명백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과정은 어렵듯이, 말과 글도 간단해 보이지만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천 중인 제 경험을 단순히 글쓰기 기법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저 자신을 돌아보며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꾸준히 실천하며, 글과 말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